

문화이론에 따른 근·현대 한복 변화 분석

- 문화 간 관계이론과 비 서구 식민지 국가의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

김 주 희 · 고 현 진*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박사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최근 신한복은 전통한복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신소재를 결합하여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K-pop 스타들을 비롯해 젊은 층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한복은 근대 이후 서구세력의 외압, 일본의 식민지, 미국의 문화 종속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근·현대화를 통해 다양하게 변화한 양상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 간 충돌을 통한 문화의 변화를 다루는 문화 간 관계이론과 비 서구 식민지 국가의 문화이론을 통해 한국의 근·현대화 과정을 살펴보고 근·현대 한복 문화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일본에 의해 서구 문화를 접촉하였으며, 미국의 영향 아래 자발적으로 서구 문화를 모방하고 수용한 특수한 근대화를 보냈다. 한국은 전지구화 현상에 합류하면서 근대사회의 주체를 자각하고 정체성을 찾는 포스트 모더니티 속 포스트 콜로니얼리티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신한복은 MZ세대 중심의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저항과 비판보다는 전통 문화와 한복에 대해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다양성과 현대성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포스트 콜로니얼리티보다는 현재성과 글로벌리티를 강조하며 새로운 K-culture를 창조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근·현대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한 한복 연구의 학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한복을 비롯한 한국문화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근·현대, 문화이론, 콜로니얼 모더니티, 포스트 콜로니얼리티, 한복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고현진, ziniko@konkuk.ac.kr

접수일: 2023년 4월 14일, 수정논문접수일: 2023년 5월 10일,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17일

I. 서론

신한복은 2013년 한복진흥센터가 한복을 모티브로 하여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일상복이라고 정의한 것으로 최근 K-pop 스타들을 비롯해 젊은 층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Choi, 2019). 이러한 신한복은 근대화 이후 전통한복이 서구 복식의 영향을 받으며, 개량한복, 생활한복, 현대한복의 변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1876년 개항 후 새로운 서구 문물을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은 약 100여 년 동안 서구세력의 외압과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수탈과 억압을 받으면서 단시일에 압축된 근대화를 이루었고, 해방과 전쟁 이후에는 미국에 의해 군사적·경제적 영향을 받는 특수한 근·현대 를 보냈다(Lee, 1999).

근대사회의 표준이 된 서구의 모더니티(modernity)는 15세기 말 지배국과 식민지 간의 관계를 통해 비서구의 근대사회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었으며, 비 서구 사회는 이를 서구화(westernization)로 인식하였다(Kim, 2009). 이 과정에서 서구와 비 서구, 식민지와 피식민지라는 복잡한 구도 내에 상이한 두 문화가 만나 문화변동이 일어났다. 비 서구 식민지 국가들은 서구의 근대성과 식민지성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서구의 모더니티와 다름을 인식하고 자국의 국민이 근대적 주체임을 자각하는 콜로니얼 모더니티(colonial modernity)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콜로니얼 모더니티는 독립 이후에는 자주적 의식이 보다 커지면서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서 포스트 콜로니얼리티(post coloniality)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은 서구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제외한 비 서구권 지역의 식민지 국가로서 이러한 외부의 다면적 영향을 받은 특수한 근·현대를 보냈다. 이제까지 근·현대 한복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통한복의 역사나 서구 중심의 문화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기에 한국의 특수한 근·현대화를 고려하여 보다 시점을 넓힌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비 서구권 국가의 근·현대화 과정 중 문화 충돌과 그에 따른 문화의 변화를 다루는 문화 간 관계 이론과 비 서구 식민지 국가의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관점으로 한복을 살펴보고 한국의 근·현대 한복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 서구 국가의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문화 간 관계 이론인 문화접변, 문화번역, 문화횡단, 비 서구 식민지 국가의 문화이론으로 근현대화와 관련하여 콜로니얼 모더니티, 포스트 콜로니얼리티를 살펴본다.

본 연구를 위해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섞여 나타나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근·현대 로 통틀어 살펴보고(Lim, 2014), 외부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역사적 전환점에 따라 개화기(1876~1910), 일제 식민지기(1910~1945), 광복·전쟁 이후 경제성장기(1946~1988), 세계화 시기(1989~2020)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Park, 2014). 본 연구를 통해 근·현대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한 한복 연구의 학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한복을 비롯한 한국문화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II. 이론적 고찰

1. 문화 간 관계이론

1) 문화접변

문화와 문화 간의 접촉은 다양한 문화변화와 개인 행동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문화접변(acculturation) 이론은 1936년 Robert Redfield 외 2인의 연구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상이한 전통과 문화를 가진 집단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원래의 문화가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한다(Redfield et al., 1936).

문화접변 과정은 특성의 선택, 특성의 결정 및 통합, 문화접변의 결과인 3단계로 나눈다. 제1단계에서 제시된 외래의 문화요소는 선택되며, 제2단계에서 선택된 문화요소를 문화 체계 가운데에 흡수하여 문화의 일부를 변용한다. 제3단계에서는 영향을 받는 쪽의 문화에 외부 문화의 특성이 결합되어 결과로 나타난다(Redfield et al., 1936). 문화접변에서 두 문화의 영향 관계는 쌍방향일 수 있으나, 힘의 논리에 의한 근대화 과정에서는 영향을 받는 쪽의 문화연구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군사적·정치적 지배 관계에 있는 상황이라도 문화 수용자는 좋은 문화적 환경을 위해 자발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때 선택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된다.

히라노 겐이치로(平野健一郎)는 이러한 문화접변 과정을 부분적 해체의 개시, 외래문화 요소의 유입, 저항, 문화요소의 재해석, 재구성, 5단계로 세분화하였다(Hirano, 2000). 히라노 겐이치로에 따르면, 문화는 사람과 환경의 변화로 부분적 해체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문화 전체의 해체를 막기 위해 외래문화의 요소가 유입된다(Figure 1). 그 과

정에서 문화는 전통과 가치의 문제에 따라 필요한 문화를 수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문화를 거절 또는 목살하는 1차 저항을 보인다(Hirano, 2000). 이후 수용된 문화요소는 문화적 충돌로 2차 저항이 생기면서 외래문화 요소를 재해석하거나 오래된 전통문화로부터 대체문화를 다시 찾으며 구평형 상태의 문화가 신평형 상태에 이르는 안정상태가 된다. 문화는 부분적 해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외래문화가 수용·변화되거나 거절된 만큼 본래의 문화요소 또한 재해석되어 기능과 의미가 변화되는데, 이때 전통의 재해석, 혹은 전통의 창출이 이루어진다(Hobsbawm & Ranger, 2012).

이와 같이 문화접변은 비대칭적인 힘의 논리에 의한 식민지와 피식민지 관계에서 식민지 국가 중심의 단선적인 문화변동을 설명한다. 그러나 식민지 국가의 고유문화 또한 변화, 생성, 소멸을 반복해온 오래된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자율성,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에 식민지 국가의 문화접변은 단선적이고 수동적인 측면보다 다차원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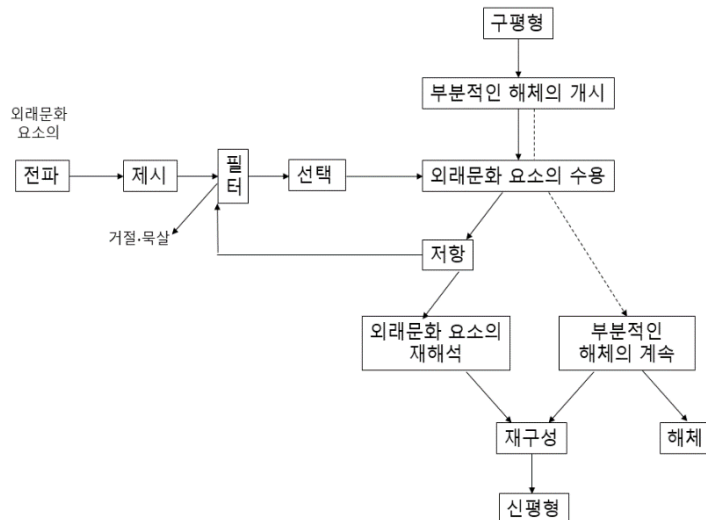


Figure 1. 히라노 겐이치로의 문화접변 과정.
From Hirano, (2000). p. 65.

2) 문화번역과 문화횡단

문화번역(culture translation)과 문화횡단(transculturation)은 문화와 문화 간 접촉에 의한 변화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탈식민주의적 문화 간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화번역은 1950년대에 인류학과 번역학에서 식민주의적으로 구축된 번역의 모순을 발견하고 판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식민주의적 관점, 즉 비대칭적인 권력의 관계 속에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였다. 문화번역은 메리 루이즈 프랫(Mary Louise Pratt)의 ‘접촉지대(contact zone)’와 호미 바바(Homi Bhabha)의 ‘제3의 공간’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메리 루이즈 프랫의 접촉지대는 역사적·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행위가 맞물리는 식민지의 경계를 의미한다. 접촉지대에서 문화 담론은 중심에서 주변을 향해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고 중심과 주변이 교류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중심적이지도 않으면서 주변적이지도 않은 이질적이고 혼종적인 문화담론을 형성하게 된다(Pratt, 2007). 이를 호미 바바는 문화와 문화 사이에 제3의 공간이 존재함을 가정하고 이 공간 속에서 문화는 불확정적이고 역동적인 것으로 본다(Bhabha, 2012). 제3의 공간

속에서 문화와 문화 사이는 상호 주관적이고 집단적인 경험의 차이로 점점 분열되는데, 이로 인해 문화 사이의 경계는 안정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 된다. 제3의 공간에서 불확정성 사이의 모순들이 융합을 거듭하며 문화가 변형되는데, 문화번역은 이러한 갈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역동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문화횡단(transculturation)은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 안에서 두 문화가 접촉할 때 식민지와 피식민지 모두 문화를 창조하는 것으로 1947년 페르난도 오르티즈(Fernando Ortiz)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이를 호미 바바가 문화번역의 과정 속에 적용하였다. 비대칭적 관계의 두 문화는 유동적인 제3의 공간 속에 드러난 모순을 통해 본래의 문화를 융합하고 변형하는데, 두 문화가 가진 차이와 경계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차별화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게 된다(Kim, 2013). 문화횡단은 문화가 단순히 이동하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경계가 곧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가 충돌하고 타협하며 서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역동적이고 혼종적인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Kim, 2013).

문화접변, 문화번역, 문화횡단은 비대칭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한 근·현대 문화변동 과정을 설명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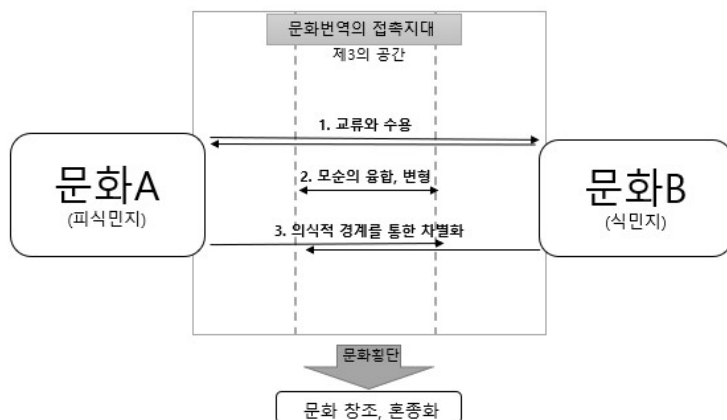


Figure 2. 문화번역과 문화횡단의 도식화.

다. 문화접변이 식민지 국가 중심의 단선적이고 수동적인 문화변동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면, 문화번역과 문화횡단은 다양한 문화 경계들이 움직이거나 유동하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두 문화가 가진 차이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차별화하여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는 쌍방향적이고 능동적인 해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Figure 2>와 같다.

2. 비 서구 식민지 국가의 근·현대 문화이론

1) 콜로니얼 모더니티

비 서구 식민지 국가의 근·현대는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자각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서구와 다르다. 서구 중심의 모더니티는 15세기 말 유럽의 강대국이 식민지를 확대한 이후 지배국과 식민지 간의 밀접한 정치·경제적 관계의 전개를 통해 비 서구의 근대사회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 서구의 근대화는 식민지배를 통해 서구화가 추구되거나 내부에서 자각적으로 서구화를 목표로 하기도 하였다. 콜로니얼 모더니티는 이와 같은 근대성과 식민지성의 복합적 관계 속에서 구축되어 독립 이후 경제 발전과 자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비 서구의 콜로니얼 모더니티는 식민지의 경제적·정치적 성장의 원동력을 역사적 관점에서 찾는 근대화 과정으로 서구 모더니티의 수용 과정 중 내부 자각에 따른 특수성을 띤다(Lim, 2014).

초기 비 서구 식민지의 근대화에 대한 시각은 식민지 수탈론이 대부분으로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역사 발전을 수동적으로 인식한 관점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과 같이 식민지를 제국주의 관점으로 관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생겨나면서 식민지 근대화 논쟁이 본격화되었고, 비 서구 식민 국가의 근대화는 서구와 다

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 시기를 가진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근대화 과정은 차이가 있으나, 독립 이후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지식인, 예술가들의 각성이 시작되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특히 1980년대 아시아의 한국, 싱가포르, 홍콩은 소농사회,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등 동아시아 전통의 특수성으로 인해 서구의 모더니티와는 다르게 급속한 경제발전의 콜로니얼 모더니티를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Jeong, 2011). 이 국가들은 식민지배를 통해 서구화되었고, 독립 이후에는 자각적으로 서구화를 목표로 하면서 서구의 문화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문화요소들을 아시아의 고유문화와 사회나 환경에 맞추어 선택 흡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 서구의 식민지 시기 형성된 콜로니얼 모더니티는 근대성과 식민지성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구축되어 200~300년에 걸쳐 이루어진 서구의 모더니티와 다르게 형성되었다. 콜로니얼 모더니티는 20세기 국제관계와 권력구조 속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비 서구권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것이었다. 이 시기 유럽은 이미 모더니티를 정리하고 포스트 모더니티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에 비해 비 서구 식민지 국가의 모더니티는 서양과 그 시기와 의미가 다르게 인식되며, 이것은 자국의 근대적 국민이 수용 주체가 되어 서구의 모더니티가 이식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발과 발전을 이룬 주체적 대응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2) 포스트 콜로니얼리티

포스트 콜로니얼리티는 과거의 식민 상황이 독립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식민주의의 해체와 극복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상태인 ‘탈식민주의’ 또는 식민 기간이 끝났으나 문화적으로 종속되어있는 상태인 ‘후기식민주의’로 해석된다

(Jeong, 2013). 이에 대한 학문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근·현대 문화는 서구의 모더니티가 포스트 모더니티로 전환되면서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포스트 모더니티를 대표하는 다원화는 서구 중심의 근대화 과정에서 억압되거나 종속되었던 지식과 의식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서구적 근대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가 부상하고 서구와 섞이면서 성장한 이들의 문화가 역수출되어 새로운 제3세계의 포스트 모더니티가 형성되고 부각될 수 있었다(Choi, 2010).

이에 대한 논의는 근대성/식민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로서 엔리크 두셀(Enrique Dussel), 월터 미놀로(Walter Mignolo), 아니발 키하노(Anibal Quijano) 등 라틴아메리카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근대성/식민성을 대립이 아닌 통합적 관계로 보았고 서구 중심적인 근대를 식민성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해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은 불확실하고 절충적인 포스트 모더니티의 개념 안에서 식민지 시기를 겪은 비 서구 국가의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중 호미 바바는 동양과 서양,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문화 연구를 통해 식민지 국가는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식민 국가를 모방하고 흉내 냄으로써 서구 중심의 식민주의 담론을 해체하는 양가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양가성은 식민지 국가의 역사적 특징에서 호감과 반감이 동시에 존재함을 뜻하는 것으로 식민 국가가 설정한 근대성/식민성은 수많은 차이와 모순을 통해 틈새가 생기고, 결국에는 식민 국가의 해체모니가 해체되어 식민지 문화의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됨을 의미한다(Bhabha, 2012).

이처럼 포스트 콜로니얼리티는 서구와 비 서구, 식민지와 피식민지, 제국주의 민족주의라는 이분법적 대립에서 시작되었지만, 대립의 극복을 위해 과거에 대한 회복을 통한 창조적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는 서구 중심적 사회에서 벗어나 문화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모습으로 모순의 반복과 변용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는 문화번역과 문화횡단을 통해 해석될 수 있다.

콜로니얼 모더니티가 식민지 국가의 자주적 근대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포스트 콜로니얼리티는 서구 중심적인 근대를 해체하여 재해석하고 창조하는 과정이다. 이를 문화 접촉 과정인 문화 간 관계이론과 연결지어 볼 때, 콜로니얼 모더니티는 비대칭적인 힘의 논리 속에서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자율성, 독자성을 지키고 극복해오며 서구의 모더니티를 수용한 피식민 국가의 단선적인 문화 접변을 보여준다. 반면 포스트 콜로니얼리티는 서구와 비 서구라는 근대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문화 간 접촉을 통해 생긴 틈새와 모순 속에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적 변용으로 문화번역, 문화횡단과 연결될 수 있다.

III. 한국의 근·현대와 한복의 시대변화

1. 한국의 근·현대화

한복의 근·현대화 과정은 개화기(1876~1910), 일제 식민지기(1910~1945), 광복·전쟁 이후 경제성장기(1946~1988), 세계화 시기(1989~2020)로 구분된다. 한국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개항을 하면서 서양과의 수교를 배경해 왔던 기존의 대외 정책을 뒤엎고 서구 문물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개화기는 선진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간 시기로 갑오개혁(1894), 을미개혁(1895), 광무개혁(1897)이 추진되었으며, 민중의 의식이 향상되어 전통적인 이념과 가치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1910년대 식민지배체제 정비와 무단통치를 시작하였고 1920년대에는 문화의식을 개조하는 문화통치정책을 펼쳤다. 1930년대에는 민족분열과 민족말살정책을 강화하여 자유를 억압하였으며, 대륙 침략을 위해 군수공업을 확장하고 자원을 약탈하였다. 일본은 사상적 근대화보다 일본 제국의 효율적 통치에 치중하였다. 일본은 민족 말살을 위해 서구의 근대를 활용하여 강제적이고 압축적인 서구화를 추진하였으며, 한국은 독립과 미국 선교사의 활동에 의한 표면상의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의식과 근대에 대한 민족의 자각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에는 근대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Lee, 2021).

한국은 해방 직후 자주적인 역사 회복과 국가관 확립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근대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불가능했다. 또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미국에 대한 호감으로 작용했고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미국의 정치·군사적 관점에 의존하면서 미국에 대한 도움의 이미지는 상상의 아메리카를 만들었다(Yoo, 2017). 한미간의 문화 접촉은 엘리트층에 의해 선별적이고 능동적 수용으로 일어났다. 한국의 대중문화 속에서 미국화가 곧 서구화이며, 서구화가 곧 현대화라는 인식이 생겼으며, 서구의 합리주의, 객관주의, 실용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에 따른 미국의 제도와 문화가 빠르게 수용되었다(Choi, 2011).

박정희 정부는 ‘근대·근대화’ 용어를 사용하여 미국의 원조와 모더니티를 근간으로 한 산업과 경제 성장 중심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Lee, 2021). 그러나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정부의 억압적 권위주의, 군사 정권의 통제 아래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투쟁의 희생도 있었다. 이는 전근대적 권위와 복종의 관료제적 권위주의에 의한 것으로 일본이 만주에서 진행했던 산업화, 도시화, 개척과 건설, 동원의 방식이었으며, 1960년대 모방과

변형, 생존과 개혁이 융합되어 한국의 도시와 공단을 건설하는 독특한 요소가 되었다(Han, 2016). 이 시기는 본격적인 근대적 성장의 시기로 보이지만, 억압적인 관료제적 권위주의 개발 방식인 전근대적인 요소와 경제 성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근대적 요소가 섞여 있었다(Lim, 2014).

한국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안정적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국제적인 교류가 증가하면서 세계화 시기에 돌입하였다. 또한 1990년대 초 인터넷 대중화로 하나의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글로벌화와 다문화가 강조되면서 전지구화 현상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민족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전통문화 연구도 활발해졌다. 2000년 밀레니엄 이후에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이 가속화되고 문화 간의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서 계층 간의 소통이 늘어났으며, 예술적 다양성도 커졌다. 2010년 이후에는 한류의 확산으로 K-pop을 중심의 K-culture가 주목을 받으며, 전지구화 현상 속에서 역동적인 문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근대는 개화와 함께 들어온 유럽의 근대 문물, 일본의 식민지배를 통한 압축적 서구화, 그리고 미국 주도의 경제 근대화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근대는 외부의 압력 속에서 수용과 저항을 반복하며 이념의 정립 없이 서구의 근대를 외형적으로 모방하고 수용하여 단기간에 형성되었으나, 근대적 역량을 축적하고 주체적으로 자기 성장을 하여 1970년대 이후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성장을 하였다. 이는 서구에서 도입한 실용적 기술과 서구의 것이 아닌 아시아적 가치를 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근대화 유교 중심적인 아시아적 가치, 전근대적 권위와 복종, ‘우리’라는 공동체적 의식에서 특이점을 찾을 수 있다(Lee, 1999). 아시아의 유교적 전통에서 온 인치(人治)와 인정(仁政)은 법치보다는 사람과 상황에 따른 유동적 가치를 중시하여 서구 근대와 달리 완벽한 이분법적 논리가

적용될 수 없었다. 또한 중앙의 권위주의와 가부장적인 체제는 산업화와 도시화 건설에 있어 빠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한국 특유의 공동체적 개념은 타문화의 접촉에 있어 포용에 가까운 수용으로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 근대의 특성은 서구 문명에서 차입한 것과 전근대적 전통의 정신적 유대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일본의 식민지와 미국의 문화적 종속,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전근대-근대-탈 근대적인 요소가 섞이고 강제와 자발적 수용, 민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독특한 민족 정체성이 섞여 표현되었다.

2. 근·현대 한복의 시대변화

근·현대 한복은 개화기, 일제 식민지기, 광복·전쟁 이후 경제성장기, 세계화 시기의 시대적 상황과 인식에 따라 변화하였다. 개화기에는 정부 개혁을 중심으로 의복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서구 문물의 유입으로 전통한복의 불편함과 신분, 성별에 따른 의복의 비합리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남성의 복식에서 관복이 서구화되고 외의(外衣)의 종류와 실루엣이 간소화되면서 신분의 구분이 사라졌다. 여성의 복식은 남녀 유별이라는 유교적

의식에서 벗어나 장옷이 사라지고 여성들은 길이가 짧은 쓰개치마나 검정우산을 썼다. 또한 여성들은 전통한복의 간소화와 함께 서구식 아이টে임을 함께 착용하였다.

일제 식민지기 복식은 근대화 과정의 일환으로 양장 착용과 한복 개량의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남학생들은 한복과 양복을 혼용하여 입었으며, 일반인들은 두루마기를 개량하여 의복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추구하였다. 개량한복은 서구 문물의 직·간접 유입으로 양장의 요소를 도입하여 개량된 한복을 의미한다. 남성 한복은 개량으로 형태가 간편하게 변하였으며, 짧은 고름이나 단추를 달고 포켓 등을 달거나 양장의 형태로 변하였다(Figure 3). 또한 일본의 색복 장려와 어두운 색 양복지의 증가로 한국 전통의 백색 한복이 줄고 검은색 한복이 증가하였다. 여학생과 신여성들은 개량한복이 유행하면서 전통적인 유교 여성상이 변화하였다. <Figure 4>는 김활란 박사의 개량한복으로 전통한복에 비해 저고리의 품이 줄어들고 길이가 짧아지고 치마의 길이가 짧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여성들은 저고리와 검은 통치마를 입었으며, 어깨허리, 주머니를 개량하여 양장의 요소를 더하였다(Hong, 1990). 또한 이 시기 한국 전통 신발 모양의 고무신이 유행했는데, 외부의 문화가 한국식



Figure 3. 양복 두루마기.
『조선일보』, 1923.12.11.
From Kim, (2016). p. 157.



Figure 4. 김활란 박사의 개량한복.
『조선일보』, 1923.9.14.
From Kim, (2016). p. 336.

으로 변형되어 실용성을 추구한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일제 식민지기는 전근대와 근대의 한복, 양장이 공존하던 시기로 복식의 과도기적 절충 모습을 보인다. 특히 개량한복은 일본의 강요 속에서 실용성, 편리함과 동시에 개성과 미를 추구할 수 있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일본은 반서구적 국수주의를 위해 조선의 문화와 정체성을 민속화 했는데, 이는 해방 이후 전통문화가 향토화, 민속화 되는 동시에 한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전통인식의 기반이 되었다(Park, 2014).

해방과 전쟁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남녀 의복은 대부분 양장화 되고 한복은 향토적, 민속적 이미지 속에서 예복화 되었다. 그러나 서구 대중문화의 유입으로 여성 한복은 서양 드레스를 기반으로 만든 한복드레스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입는 생활한복의 기반이 되어 전통적 이미지와 현대적 심미성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Figure 5,6>는 오현주가 1959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착용했던 노라노의 아리랑 드레스이다. 아리랑 드레스는 저고리와 치마로 이루어져 있으나, 서양식의 패턴으로 만들어 전통한복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보다 서양 의복의 방식을 수용하여 한복에 접목한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대에는 경제가 안정되면서 시대적 이념과 저항의식을 표현하는 민중한복과 세계화를 지향하고 전통성을 회복하고

자 하는 생활한복이 나타났다. 민중한복은 저고리와 바지, 치마를 지향하는 것으로 단출하고 소박한 일상의 한복을 생활화했으며, 생활한복은 한복의 생활화를 위해 개량한 것으로 전통적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현대적 심미성 및 민족의 이념성을 추구하였다(Chung, 2001). <Figure 7>은 이승만 대통령의 소색 두루마기로 고름 대신 두 개의 단추가 달려 있는데, 이는 1970년대 민중한복과 정치인의 한복으로 입혀졌다. <Figure 8>과 같은 생활한복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서구의 소재와 디테일이 사용하였으나, 한복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전통성과 주체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민중한복은 1980년대 이후 저항의식과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 이미지로 인해 대중에게 확산되지는 못했으나, 생활한복과 함께 서양을 모방하는 근대화 과정에서 진정한 근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은 88서울올림픽 이후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면서 문화가 성숙해지는 세계화 시기에 접어든다. 세계화 시기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디자이너가 증가하면서 전통한복과 서양복의 디자인 요소를 연구하고 한국적인 패션을 창조하는 현대한복으로 이어졌다. 현대한복은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다른 문화와의 차별성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한국적인 패션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Seomoon



Figure 5. 노라노의 아리랑 드레스 상의.
From Emuseum, (n.d.a).
<https://www.emuseum.go.kr>



Figure 6. 노라노의 아리랑 드레스 하의.
From Emuseum (n.d.b).
<https://www.emuseum.go.kr>



Figure 7. 이승만 대통령 소색두루마기.
From Presidential Archives, (n.d.).
<https://www.pa.go.kr>



Figure 8. 생활한복.
From "National Folk Museum", (n.d.).
<https://www.nfm.go.kr>

& Kim, 2019). 현대한복의 다양한 시도는 2000년 이후 네트워크 확대와 한류열풍을 통해 구성, 색상, 소재, 디테일, 아이템 간의 코디, TPO 등의 디자인 경계가 자유로워졌으며,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한복 패션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 디지털 문화의 중심 세대인 MZ세대가 탈계몽주의적, 수평적, 쌍방향적 탈 허브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면서 한복 또한 민간, 국가, 미디어 매체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단순히 전통적인 드레스 코드가 아닌 신한복과 같은 새로운 패션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신한복은 한복진흥센터 주체로 2014년부터 시작된 용어로 한복에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통과 현대패션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의미한다(Choi, 2019). <Figure 9>는 삼성 갤럭시 광고에 나타난 신한복의 모습으로 전통 속옷 바지에서 영감을 얻은 오버롤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을 조합하여 새로운 한복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 한복의 흐름은 전근대 한국의 의복 문화가 서구의 근대문화와 부딪히고 충돌하며 변한 것으로 비 서구 식민지 국가로서 한국의 특수한 근·현대 문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근·현대 문화 간 관계이론과 비 서구의 근·현대 문화이론을 통해 근·현대 한복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Figure 9. 삼성 갤럭시 광고의 신한복.
From Today's commercial. (2020). <https://youtube.com>

IV. 문화이론에 따른 근·현대 한복

1. 문화 간 관계이론에 따른 해석

본 절에서는 문화접변을 히라노 겐이치로에 따라 해체의 개시, 외래문화 요소의 수용, 외래문화 요소의 재해석, 부분적인 해체의 계속, 재구성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으며, 문화번역과 문화형단은 호미 바바와 메리 루이즈 프랫의 접촉지대를 사용하여 교류와 수용, 융합과 변형, 차별화를 중심으로 근·현대 한복의 변화과정을 해석하였다.

1) 외형적 모방과 수용의 과정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비대칭적인 힘의 논리 속에서 비 서구 식민지 국가의 문화변동을 보인다. 한국의 서구 문화 수용은 근대화 초기에 문화접변에서 보이는 단선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외래문화 요소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문화변동 과정에는 전통과 가치가 필터로 작용하여 일부 문화요소의 재해석이 일어기도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미국의 문화적 종속 속에서 서구 문화에 대한 모방과 수용은 주요한 문화변동 현상이었다.

조선 말 전근대 문화의 부분적 해체가 시작되면서 서구 문화요소가 수용되었다. 개화기 의복 개혁은 유교적 봉건체제를 대신하여 신분과 귀천에 따른 인식을 변화시켰는데, 특히 한복의 간소화와 서구 아이템의 유입은 합리성, 기능성,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의 문물과 근대적 사고를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접변에 있어 전통적인 사고관과 전통복식과 조화의 필요성이 필터로 작동하면서 서구 문화는 단시일에 적용되지 못했으며, 변형보다는 부분적인 조화를 통해 수용이 이루어졌다.

일제 식민지기는 군사적·정치적 지배로 인해 규제성이 있는 문화접변이 이루어졌다. 한국은 일본에 의한 압축적인 근대화로서 서양의 아이템과 근대

적 사고를 외형적으로 빠르게 모방했는데, 한복의 개량은 서양 의복 문화가 전통한복의 요소와 조화라는 필터를 통해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요소만을 수용하고 적용된 문화접변 현상을 잘 보여준다. 남성은 서양 코트를 두루마기와 같이 만들어 입었으며, 여학생과 신여성들은 한복의 길이와 품을 줄여 근대성과 식민지성이 결합한 복합적인 소비 문화의 주체적 모습을 보여주었다(Kim, 2005). 이러한 개량한복은 전통한복과 양장 사이에서 서구 근대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전근대의 한국 의복이 양장화 되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의 색복 장려는 근대적 실용 문화를 들여온 것처럼 보이지만, 백의 전통을 없애고자 하는 강제적 문화접변이기도 하였다.

광복과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대중문화 속에서 미국화가 곧 서구화이며, 서구화가 곧 현대화라는 아메리카나이제이션(Americanization)을 경험한다(Ahn & Yang, 2001). 경제 성장의 주체였던 남성들은 대부분 양복을 입었으며, 한복은 의례복과 민속복이 되거나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여성들은 실루엣, 소재, 디테일 등 서양 드레스의 요소를 차용하여 한복드레스를 만들어 입었는데 한복드레스는 실용성보다는 특별한 행사와 새로운 시도를 위한 옷으로 현대화와 서구화, 미국화를 동일시하며 수용하고 모방했던 문화접변을 잘 보여준다.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은 결여되었던 기술과 풍요, 자유, 강력한 국가, 근대적 이미지를 지향한 지배적 허구로 미국 문화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식민지기와 달리 서구의 근대문화를 미국을 통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선택적인 것만이 문화 체계 속으로 흡수된 문화접변이었다.

유행은 모방을 통해 확산된다. 개화 이후 서구의 문물과 사고관에 대한 모방과 수용은 근대화를 이루는 큰 부분으로 한복의 변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수동적이고 단선적인 문화접변 과정으로 전통적 가치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외래문화의 모방과 수용을 반복하였으며, 근대적 요소가 한복에 적용될 수 있었다.

2) 해체의 연속과 재구조화

근대화 과정에서 문화는 비대칭적인 힘의 논리에 의한 해석이 불가피한데, 수용된 문화는 저항과 필터의 반복을 통해 연속적으로 해체되거나 재구조화 하며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된다.

일본 식민지기에는 전근대와 근대의 한복이 공존하였다. 지식인과 남학생들은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으로 서구문물을 거부하고 대신 전통한복을 입었다. 이는 문화접변에 있어 저항에 대한 대안을 전통문화에서 찾은 것으로 전통한복은 문화적 저항이자 민족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었다. 또한 1920년대 고무신은 물이 새지 않았으며 질기고 실용적이어서 1960년대까지 한국의 전통신발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외부의 문화가 한국식으로 변형되어 다시 흡수된 사례로 수용된 외래문화 요소가 해체되고 재해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복과 전쟁 이후 정부는 미국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 중심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사 정권의 통제로 억압된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의 정치투쟁이 일어났는데, 민중한복은 당시의 시대적 이념과 저항의식을 표현하고 민족의 자주성과 전통성을 자각하는 역할을 하였다. 형태상 개량한복인 민중한복은 서구 근대 문화가 수용되고 문화의 해체가 반복되면서 전통 문화에서 대안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1970년대 말 생활한복은 민중한복의 이념성과 한복 패션의 심미적인 전통성 작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 생활한복은 서구의 다양한 장식기법과 실루엣을 한복에 적합하게 변형하고 개발하는 등 현대적 심미성과 예술성을 수용하고 전통적 이미지와 의복의 기능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조화 하였다. 이 시기 미국 문화의 수용은 반감의

분위기도 있었지만, 자발적 수용을 통해 새롭게 문화를 재구조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올림픽 이후 글로벌화와 다원화가 강조되면서 한복은 한국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표현하고 현대적 심미성과 기능성을 지닌 디자인 연구로 진행되었다. 초기의 현대한복은 디자이너들이 세계 패션 무대에 진출하면서 전통한복에 서양적인 요소를 넣거나 서양복에 한국적인 요소나 이미지를 넣어 변형하는 양방향의 디자인으로 전개되었다. 서구와 쌍방향의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한복과 서양복의 이분화 된 요소들은 해체되고 재구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한복 문화에는 한복과 서양복의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변형과 융합이 일어났는데, 이는 탈근대 시대에 문화번역과 문화횡단에서 설명하는 쌍방향 간 교류와 수용을 통한 변형과 융합의 과정으로 해석된다.

식민지 국가의 문화는 모방과 수용을 반복하는 동안 해체되거나 재해석된다. 한복 문화는 서구 문물과 근대적 사고의 유입으로 부분적 해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저항을 통해 재해석되거나 의미와 기능이 변화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화 시기에는 쌍방향의 문화 간 교류와 소통으로 이루어지면서 전통한복의 요소는 현대적 디자인의 요소가 되어 변형되고 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창조적 변형

2000년 이후 인터넷과 미디어 발달이 가속화되고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관계성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지구촌 문화가 형성되었다. 문화의 창조적 변형은 쌍방향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으로 세계화와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역동적인 움직임과 맞물려 보다 시너지 효과가 생긴 것으로 문화 해체의 연속·재구조화와는 차이가 있다.

세계화 시기 현대한복은 개량한복과 생활한복에 한복 디자인의 요소를 다양하고 폭넓게 활용한 것으로 전통한복에 서양적인 요소를 넣거나 서양

복에 한국적인 요소나 이미지를 넣어 변형하였다. 호미 바바는 문화번역과 문화횡단에서 식민지의 모방은 서구의 근대성과 식민성을 해체하는 양가성을 가지게 되고, 접촉지대에서 모순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융합과 변형으로 창조적인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한복은 서구 근대문화의 유입 이후 개량한복, 한복드레스, 민중한복, 생활한복으로 수용과 해체를 반복하였다. 현대한복이 양방향의 디자인으로 전개되면서 한복과 서양복의 디자인적 요소들이 이분화하고 충돌하면서 다양한 모순들이 생겼는데, 이러한 모순들은 또 다른 융합과 변형을 만들게 되었다.

한복은 현대 패션디자인의 요소가 되어 서구패션과 한복 아이템을 코디하거나, 한복 자체를 모티브로 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하게 되었다. 한류 열풍 속 아이들이 입은 신한복은 전통문화 진흥사업으로 새롭게 해석된 한스타일(hanstyle)로 한복패션이 세계무대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였다. 신한복은 한복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장르의 한복으로 구성, 색상, 소재, 디테일, 아이템 간의 코디와 TPO 등의 디자인 경계가 자유로운 창조적 디자인으로 표현된다. 이는 메리루이첼 플랫폼과 호미 바바가 문화번역과 문화횡단에서 사용한 접촉지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MZ세대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동적인 접촉지대 속에서 한복이라는 전통문화가 서양의 근대 문화를 만나 모순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변형하고 융합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것이다. 서로 다른 두 문화는 접촉지대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양 문화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차별화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데, 신한복은 전통적 가치는 물론 타인과 구별하려는 새로운 세대의 의식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은 창조성이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 젊은 세대들은 한복에 대해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거나 미화하기보다는 문화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며 자

Table 1. 문화 간 관계이론에 따른 한복의 흐름.

개화기 (1876~1910)	일제식민지기 (1910~1945)	광복전쟁 이후 경제성장기 (1946~1988)			세계화 시기 (1989~2020)	
전통한복	개량한복	한복드레스	민중한복	생활한복	현대한복	신한복
서구 근대 유입 전근대 문화의 부 분적 해체 한복의 간소화 합리성, 기능성, 실용성 추구	빠른 외형적 모방 실용적 요소 수용 한국의복 과도기 강제적 문화접변	한복의 의례복화 서양드레스 요소 차용 미국문화의 동일시 와 수용 자발적 문화접변	개량한복의 연속성 전통요소를 통해 저항의식 표현	민중한복의 이념성 전통한복의 심미성 의복의 기능성을 재구조화	서양요소의 전통화 전통요소의 서양화 이분화된 요소들의 변형과 융합 모순들에 의한 지 속적 변형	한복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자유로운 디자인 경계로 변형과 융합 문화적 경계를 넘어 개성 표현
외형적 모방과 수용의 과정				창조적 변형		
			해체의 연속과 재구조화			

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새로운 한복으로 창조될 수 있었다. 문화 간 관계이론에 따른 한복의 흐름은 외형적 모방과 수용의 과정, 해체의 연속과 재구조화, 창조적 변형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 비 서구 식민지 국가의 문화이론에 따른 해석

1) 콜로니얼 모더니티: 실용 중심의 근대성 수용과 주체적 자각

개화기 전근대 문화와 다른 방식의 서구 문물과 서구적 사고를 받아들이면서 의복에서는 개량보다 개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개혁은 정치·사회상의 구체제가 절차를 밟아 변하는 것으로 의복 개혁은 서구의 합리적인 사고 양식과 근대적 시스템을 받아들여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있었다(Chung, 2001). 개화기 의복 개혁과 한복의 간소화는 과거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신분의 귀천 구분이 없는 근대적 사고로 인해 발전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이 서구식 문물을 수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생활방식 역시 자리잡게 되었다.

식민지기에는 일본의 압축된 근대 문화가 빠르고 강제적으로 수용되었다. 일본의 강요로 남성들은 짧은 머리와 양복 착용이 증가하였고, 여성들

은 서구식의 옷차림과 절충적인 변화를 통해 의식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구체제에서 벗어난 존재임을 표현하였다(Kim, 2005). 개량이란 비합리적인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전통한복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한다(Chung, 2001). 개량한복의 활동성, 기능성, 경제성 중심의 외적인 변화는 한국 의복의 근대사에서 전통 의복이 서구의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근대를 수용하여 양장화되는 중간 과정이 되었다. 일본은 실용적이고 오염이 덜 보인다는 이유로 검은색 개량한복을 강요하였는데, 이는 전통한복을 비합리적이고 뒤떨어진 것으로 제시하여 전통문화를 없애려는 식민당론의 일부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일본의 식민화 전략은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이 되어 오히려 근대적 주체로서 자각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은 광복과 전쟁 이후 미국의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서구의 근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발적이고 선별적으로 문화를 수용하여 아메리칸라이제이션 되었다(Ahm & Yang, 2001). 남성의 의복은 대부분 양장으로 변했고 여성의 한복은 양재가 일반화되고 합성섬유 등의 실용적인 서양 소재가 함께 사용되었다. 반면 1970년대 시대적 이념과 저항의식을 표현한 민중한복은 당시 서구의 근대와 동일시된 미국의 지배와 종속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주를 갈망하던 반미문화이자, 근대 요소인 평등, 자유, 민주화를 위한 정치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Choi, 2010). 한국의 콜로니얼 모더니티는 모더니티가 정리되고 포스트 모더니티가 진행되던 서구의 모더니티와 시기와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은 70년대에 저항적 청년 문화와 민중문화가 등장하였으며, 80년대에는 정권에 의해 대중문화가 문화전략적 수단과 회유의 도구로 활용됨과 동시에 서구의 모더니티와 포스트 모더니티가 공존하였다는 점에서 이분법적이고 양면적인 근대성이 여전히 작용되고 있었다(Choi, 2010).

호미 바바는 식민지 국가는 자신을 침범하는 식민 국가의 문화에 대해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가진다고 설명한다. 경제 성장이라는 이면에는 문화적 식민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근대성이 이분법적이고 양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곧 문화적 종속에서 벗어나 근대성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근대의 주체로서 인식하려는 모습이었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면서 생활한복은 서구의 기능주의와 합리주의를 추구하면서 전통성 회복이라는 의식이 추가되었다. 생활한복은 전통적 이미지와 현대적 심미성을 표현하고 근대 주체의 패션으로서 정체성을 표현하며 새로운 한복 문화의 자구책으로서 신한복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역할을 하였다.

일본 식민지기와 달리 미국의 문화적 종속 시기는 자발적으로 서구 근대문화를 학습했던 시기로 한복의 외형이 다양하게 변화하였으며, 근대의 주체를 자각하게 되면서 한복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이는 비 서구 식민지 국가의 콜로니얼 모더니티에서 서구 중심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서구 근대의 이면이 식민성임을 인식하고 근대의 주체를 자각하게 된 것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2) 포스트 콜로니얼리티: 관찰자에서 능동적 참가자로의 변화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동시에 세계적인 포스트모던의 영향으로 새로운 한복 패션이 시도되었다. 현대한복은 개량한복, 생활한복에 한복 디자인의 요소를 폭넓게 활용한 것으로 전통한복에 서양적인 요소를 넣거나 서양복에 한국적인 요소를 넣어 변형하는 양방향의 디자인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불확실하고 절충적인 포스트 모더니티 개념 안에서 식민성의 관점에서 벗어나 근대적 주체로서의 새로운 변화로 전통과 근대 문화 사이에서 능동적으로 한복을 해석하려 한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문화 간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한복 체험과 한류열풍이 증가하면서 MZ세대의 디지털 문화 속 신한복의 붐으로 이어졌다. 신한복은 구성, 색상, 소재, 디테일, 아이템 간의 코디와 TPO 등의 경계가 자유로운 창조적 디자인으로 서구패션과 한복의 코디, 전통복식과 서양 의복 요소의 조화를 통해 한복의 영역을 디자인하는 한복, 전통을 벗어나 예쁘고 만족스러운 한복으로 바뀌고 있다.

호미 바바는 문화번역과 문화횡단에서 식민지 국가는 식민지기 모방을 통해 서구의 근대성/식민성을 해체하는 양가성을 가지게 되고 모순의 반복적인 변용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식민지 국가의 모방과 변용의 모습은 포스트 콜로니얼리티의 흐름으로 이어져 서구와 비 서구, 식민지와 피식민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이분법적 대립에서 벗어나 전통성을 회복하면서도 대안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민중한복은 근대성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근대의 주체로서 인식하려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근대성에 대한 분열과 자각의식은 전통한복과 현대패션 사이의 고민으로 이어졌으며, 모순의 변형과 융합을 통해 경계가

Table 2. 비 서구 식민지 국가의 문화이론에 따른 한복의 흐름.

개화기 (1876~1910)	일제식민지기 (1910~1945)	광복전쟁 이후 경제성장기 (1946~1988)			세계화 시기 (1989~2020)	
전통한복	개량한복	한복드레스	민중한복	생활한복	현대한복	신한복
서구근대유럽 의복의 개혁 한복 간소화	한복의 활동성, 기 능성, 경제성 개량 일본에 대한 저항 의식과 근대적 주 체로의 표현	남성복의 양장화 여성한복의 양재화 와 서양소재 사용	근대성 비판의식과 근대 주체의 인식 공존	서구 기능주의, 합 리주의 추구 전통성 회복 근대적 주체로서 새로운 한복 문화 의 자구책	포스트모던으로 새로운 한복 패션 시도 전통과 근대 문화 의 능동적 해석	서구패션과 전통 복식의 이분법적 대립 극복 경계가 자유로운 창조적 디자인 모순의 변형, 융합 을 통해 한복 영역 을 디자인화
콜로니얼 모더니티 : 실용중심의 근대성 수용과 주체적 자각					포스트 콜로니얼리티 : 관찰자에서 능동적 참가자로의 변화	

자유롭고 창조적인 신한복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개화기 간소화에서 시작된 한복의 외형적 변화가 식민적 관찰자로서 소극적 변화였다면, 민중한복의 분열과 자각을 거친 창조적인 신한복은 능동적 참가자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의 근대는 일본과 미국 등 외부의 압력 속에서 수용과 저항을 반복하며 서구의 근대를 외형적으로 모방하고 수용하였다. 그러나 서구에서 도입한 실용적 기술과 유교 중심의 아시아적 가치, 전근대적 권위와 복종, ‘우리’라는 공동체적 의식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은 탈근대사회에서 타문화에 대한 포용에 가까운 수용으로 외부의 문화를 빠르게 학습하고 소화하여 ‘나’와 ‘너’가 섞여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복은 서구와 비 서구, 식민과 피식민지의 단순한 섞임이 아닌 자기 갈등과 성찰을 통해 정체성을 재현했는데, 이는 내부갈등, 주체의 자각, 경험과 가치관의 공유라는 근대화 과정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뉴욕 타임스』의 “한국이 전쟁, 독재, 민주화와 급속한 경제 성장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면서 그 창조자들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예리한 안목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종종 사회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기사와 같

이 한국은 특수한 역사적 과정과 환경을 바탕으로 한국 특유의 역동적 능력을 반영한 K-culture를 창조해 냈고, 전지구적 현대 디지털 문화 속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Choe, 2021). 비 서구 식민지 국가의 문화이론에 따른 한복의 흐름은 근대성 수용과 주체적 자각의 콜로니얼 모더니티와 능동적 참가자로의 변화를 보이는 포스트 콜로니얼리티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V. 결 론

한복은 근대 이후 서구세력의 외압, 일본의 식민지, 미국 문화의 종속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근·현대화를 통해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왔다. 본 연구는 문화 간 충돌을 다루고 있는 문화 간 관계이론과 비 서구 식민지 국가의 문화이론을 통해 이러한 한국 근·현대화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변화해 온 근·현대 한복 문화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식민지 시기 일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구의 근대와 접촉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문화적 종속을 통해 서구의 근대를 수용하였다. 이에 한국의 근대는 비 서구 식민지 국가와 다른

콜로니얼 모더니티의 모습으로서 강제적이면서도 자발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복 문화에는 상이한 두 문화가 만나 서로 변화하는 문화접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한복은 서구의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근대적 요소를 수용하여 형태와 기능면에서 변화하면서도 전통적 가치와 민족주의라는 필터의 저항을 통해 재해석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복은 해방 이후 서구 사회에 모습을 차츰 드러내면서 서구의 오리엔탈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해체와 재구조화를 반복하며 생활한복, 현대한복, 신한복의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IT발전에 힘입어 글로벌 시대의 다른 비 서구 식민지 국가에서 보이는 역동적 모순의 포스트 콜로니얼리티와는 달리 현재성과 글로벌리티를 강조하며 새로운 K-culture로서 글로벌 무대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근·현대 한복의 흐름은 전근대 한국의 의복 문화가 서구의 근대문화와 부딪히고 충돌하며 변한 것으로 비 서구 식민지 국가였던 한국의 특수한 근·현대 문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근·현대 한복의 변화의 흐름 안에는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의 충돌 가운데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현재 한국의 문화는 보다 다채롭고 풍요로워졌으며, 전통문화는 보존해야 할 유산이면서 동시에 즐기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시점에 한복을 비롯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를 환경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근·현대의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관점으로 한복을 살펴보고, 근·현대 한국문화의 흐름과 신한복까지 이어진 한복의 방향성을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근·현대 한복을 살펴보는 데 있어 약 150년 이상의 근·현대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에 시대적 상황에 따른 모든 한복의 양상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

구는 전통한복이 현재의 신한복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한복의 근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주체적 인식의 변화과정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서구의 근·현대뿐만 아니라 비 서구 식민지 국가의 근·현대 또한 시기적 구분과 관점에 대한 논의가 많기에 본 연구의 관점이 제한적인 시각이 될 수 있음을 밝히며 따라서 또 다른 관점에서의 다각도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한복은 빠르게 변화하는 전지구적 현상 속에서 학문적인 검토가 현재에도 진행중이기에 신한복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연구 틀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의 한복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 환경에 맞추어 한복이 나아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S. K., & Yang, S. H. (2001). A study of 'Americanization' expressed in Korean clothing culture: Through the magazines from 1920's to 193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1), 50-60.
- Bhabha, H. K. (2012).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hoe, S.-H. (2021, November 3). From BTS to 'Squid Game': How South Korea became a cultural juggernaut.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November 3, 2021, from <https://www.nytimes.com/2021/11/03/world/asia/squid-game-korea-bts.html>
- Choi, C. (2010). *20세기 문화지형도* [20th Century cultural topographic map]. Seoul: Culturegrapher.
- Choi, S. (2011). The traits of americanization in modern Korea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1(3), 1-19.
- Choi, Y. J. (2019). A study on design characteristics of new Hanbok: Focused on the fashion from 2013 to 2017.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20(3), 421-432. doi:10.47294/KS BDA.20.3.32
- Chung, H.-G. (2001). The background and the pursuits of Saenghwal Hanb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1(2), 27-42.
- Emuseum. (n.d.a). 볼레로(아리랑드레스상의)[bolero(Arirang dress top)]. emuseum.go.kr. Retrieved November 13, 2021,

- from <https://www.emuseum.go.kr/imageview/PS010041320100334000000>
- Emuseum. (n.d.b). 아리랑드레스[Arirang dress]. *emuseum.go.kr*. Retrieved November 13, 2021, from <https://www.emuseum.go.kr/imageview/PS01004132001003339000000>
- Han, S. J. (2016). *만주 모던* [Manchurian modern]. Seoul: Moonji Publishing Co., Ltd.
- Hirano, G. (2000). *국제문화론*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Tokyo: Tokyo University Press.
- Hobsbawm, E., & Ranger, T. (2012).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ng, N. Y. (1990). A study on Hanbok improvement movement: Focusing on women's cloth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15(-), 141-148.
- Jeong, H. C. (2013).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Postcolonialism and Cosmopolitanism]. Seoul: Donginbook.
- Jeong, Y. T. (2011). *한국 근대와 식민지 근대화 논쟁* [Debate on modernization of Korea and colonialism]. Seoul: Blue History.
- Kim, M. H. (2016). *모던썸크명랑* [Modern chic cherry]. Paju: MUNHAKDONGNE Publishing Corp.
- Kim, J. K. (2009). Modernity as functional differentiation: 'Ideal' or 'reality'?. *Society and Theory*, 15(-), 39-77.
- Kim, J. R. (2005). *모던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 [Modern girl, throw away the fox scarf]. Paju: Sallimbooks.
- Kim, Y. G. (2013). *혼종문화론* [Theories of hybrid culture]. Seoul: Somyungbooks.
- Lee, H. (1999). *근대성, 아시아적 가치* [Modernity, Asian values, world history]. Seoul: Moonji Publishing Co., Ltd.
- Lee, S. M. (2021). *한국의 자주적 근대화에 관한 성찰* [Reflections on the independent modernization of Korea]. Paju: Nanam.
- Lim, H. B. (2014). *비동시성의 동시성* [Simultaneity of non-simultaneous].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d). 바지저고리[Pants and jacket]. *nfm.go.kr*. Retrieved November 13, 2021, from <https://www.nfm.go.kr/common/data/home/relic/detailPopu.p.do?seq=PS0100200100108327200000>
- Seomoon, Y., & Kim, Y. I. (2019).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style fashion design and the changing trends as society and culture change over tim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69(7), 1-17.
- Park, G. R. (2014). *모더니티와 전통론: 혼돈의 시대, 미술을 통한 정체성 읽기* [Modernity and traditional theory: The age of chaos, reading identity through art]. Seoul: Publishing Hyeon.
- Park, C. S. (2014).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Read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Paju: Kyungin Publishing.
- Presidential Archives. (n.d). *소색두루마기* [White Durumagi]. *pa.go.kr*. Retrieved August 14, 2023, from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story/story01.jsp.
- Pratt, M. L. (2007).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 Today's commercial. (2020, November 19) *Z플립 내려온다* [Z Flip is coming down]. *Youtube*. Retrieved November 13, 2021, from <https://youtube/3MTtB-iSlc>
- Yoo, S. Y. (2017). *식민지 트라우마* [Colonial trauma]. Seoul: Blue History.

Analysis of Changes in Modern and Contemporary Hanbok according to Culture Theory

**- Focused on the Theory of Intercultural Relations and the Cultural Theory of
Non-Western Colonial Countries -**

Kim Juhee · Ko, Hyunzin⁺

Ph.D., Dept. of Clothing, Konkuk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the new Hanbok has transformed into a cultural trend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including K-pop stars, offering a blend of modern design and traditional elements that makes it suitable for everyday wear. Traditional Hanbok has chang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West since the modern times, and various changes in Hanbok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special modernization of Korea by western forces;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bordination to US cultur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modern and contemporary Hanbok culture by looking into the process of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Korea through the intercultural relation theory and cultural theory of non-western colonial countries. Korea accepted western culture through Japan and had special modernization which voluntarily copied and accepted western cultu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The aspects of post coloniality within the post modernity, in which it sought its own identity with the awareness of the subject of the modern society, could be identified recently in Korea that joined a globalization phenomenon. However, the current new Hanbok pursuits diversity and modernity for the Millennials and Gen Z, centered more on the digital network, rather than resistance and criticism. New Hanbok emphasizes present aspects as well as diversities and creates new K-Culture distanced from traditional culture. Therefor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examined the unique modernization of Korean Hanbok and built the found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Hanbok research in accordance with cultural theory.

Key words :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theory, colonial modernity, post coloniality, Hanbok